

SORAEPOGU STORYBOOK

소래포구 스토리북

남동구 · 남동문화재단

[일러두기]

- 이 책은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한글 자음별로 정리한 자료로 지역 원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문화원 등에서 기존에 발간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되었습니다.
-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지역민의 증언으로 서술된 것들이 다수 있으며, 각자의 의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문체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 이 책에 집필된 전통마을·산·하천 등은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과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나, 내용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록하였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일러스트와 사진은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작 혹은 촬영된 것들입니다.
-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기존 발간한 책자, 기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활용했으며 출처를 밝혔습니다.

목차

ㄱ	꽃게	9
	갯벌	10
	고잔동 지명유래	12
ㄴ	난전	17
	논현포대	18
	남촌면	21
	논현동 지명유래	22
	남동소래아트홀	24
ㄷ	도선장	29
	둘레길(남동둘레길)	30
ㄹ	라면(해물라면)	35
ㄴ	물때	39
ㅁ	뱀내천	43
	바위 설화	44

ㅅ	새우	49
	수인선	50
	소래산	52
	소서노	55
	신향민	56
	소래 지명유래	58
	서창동 지명유래	60
	소래역사관	63
	소래습지생태공원	64
	소래포구전통어시장	67
	새우타워	68
ㅇ	어항	73
	염전	74
	염부곤	77
	엄마 없는 하늘 아래(영화)	78
	윤후명(소설가)	80
	임평모(시인)	82
ㅈ	젓갈	87
	장도포대	88
	조동면	91

ㅊ	축제(소래포구 축제)	95
	철교	96
ㅋ	칼국수	101
ㅌ	튀김	105
ㅍ	팔경(인천팔경)	108
	포구	112
	파시	115
	풍어제	116
ㅎ	호구암	121
	협궤열차	122
	해수 김치	126
	활어회	129
	회화(소래포구 회화)	130
	해오름광장	133
	해넘이다리	134
	한국화약 인천공장	137



꽃게
갯벌
고잔동 지명유래



꽃게

한국인들은 ‘게’ 하면 보통 꽃게를 떠올릴 정도로, 한국에서 꽃게는 흔하다 해요. 하지만 꽃게가 처음부터 흔한 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까지는 민물 게인 참게가 많았고, 꽃게는 20세기 이후부터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르게 되었답니다. 당진, 서산, 태안, 홍성에서는 게를 ‘그이’라고 부르고, 서천, 보령, 군산에서는 ‘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꽃게의 ‘꽃’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꽃처럼 생겨서 꽃게라 하는 것일까요? 꽃게의 ‘꽃’은, 꼬챙이라는 뜻의 꽃(串)이 바뀐 말일래요. 다른 게들과는 달리 등딱지 양 모서리가 꼬챙이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어서 ‘꽃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봄과 가을은 꽃게 철로 유명한데, 봄은 암게가 알을 가득 품고 있어서 꽃게 제철이라 해요. 꽃게는 겨울잠을 자다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얇은 바다로 이동하거든요. 가을은 반대로 수꽃게가 살이 통통 차올라요. 덕분에 5월과 9월에는 수인선 소래포구역 주변에 꽃게탕, 꽃게찜, 게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해안 꽃게는 예로부터 맛있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특히 소래포구의 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청정지역인 연평도에서 잡힌 꽃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래포구를 ‘꽃게 성지’라고도 부르고요. 소래포구의 해오름광장에는 꽃게 모양의 황금 동상도 있어요.

갯벌

서해바다 하면 모래사장보다는 갯벌이 떠오르죠. 갯벌은 개펄, 줄여서 펄이라고도 불려요. 바닷물이 밤낮으로 오고 가면서 오랫동안 부드러운 흙이 바닷가나 강에 쌓인 곳이에요. 갯벌은 대부분 평평하죠. 그런데 물길이 흐른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소래포구 너머 생태공원 방면처럼 갯골을 이루기도 해요.

인천의 갯벌은 총 세개가 넓게 분포했어요. 191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이기 전 북부의 김포갯벌, 중부의 송도갯벌, 남부의 남동갯벌이지요. 소래포구는 남동갯벌에 속해요. 김포갯벌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육지 깊숙이 발달해 있었죠. 소래포구와 가까운 호구포는 서해바다에서 승기천을 따라 내륙으로 길게 들어가던 긴 갯골의 입구였어요. 개발 전까지만 해도 현재 남동구청 근처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포대를 만들어 방비하기도 했죠. 개항 후 포대는 없어졌어요. 1970년대까지 남동역에서 논현역에 이르는 넓은 갯골과 갯벌은 우리나라 최대 염전지대가 되었어요. 과거 남동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곳곳으로 뻗어 나갔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남동갯벌에 남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 용지로 변했어요. 지금 소래포구는 병풍 같은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버렸죠. 수인선과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소래포구를 지날 때면 너른 바다의 입구와 갯벌이 보여요. 소래교 너머 소래습지생태공원 방면으로는 부드러운 개흙질 펄이 골처럼 패여 여전히 긴 주름을 이룬답니다. 운이 좋으면 만조에 조개와 작은 게를 사냥하는 흑두루미도 볼 수 있어요.



고잔동 지명유래

고잔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쪽에 위치한 법정 땅 이름이에요. 면적은 10.5㎢이며, 2023년 4월 기준 인구는 41,256명이죠. 동쪽으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남쪽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북쪽으로 남동구 논현동과 접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외형이 뾰족하게 나온 것을 ‘곶(串)’이라 말했대요. 여기서 파생된 용어가 ‘고곶(곶갈)', ‘고드름(곶어름)', ‘곶쟁이(곶광이)', ‘곶계(곶계)’ 등이예요. 고잔동이 있는 곳도 땅의 한쪽이 돌출한 모양이었는데, 돌출된 지형에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고잔(곶안)’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조선시대 인천부 다소면 고잔리(古棧里)가 있었으나 1883년 개항 이후 원래의 명칭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이 없어지고 합쳐지며 고잔리가 당시 부천군 남동면에 속했다가 1940년 다시 인천부 일향정이 되었죠. 광복 이후에는 1946년 고잔리로 불리다가 1949년 고잔동으로, 1968년 남구 고잔동으로, 1988년 인천직할시 남동구 고잔동이 되었답니다.





난전
논현포대
남촌면
논현동 지명유래
남동소래아트홀





난전

소래포구 난전을 아시나요? 소래포구 어시장은 젓갈과 꽃게, 그리고 새우 등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그 옆에는 항상 난전이 있었어요. 난전(亂廐)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가게를 여는 것을 말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무허가 점포, 혹은 노점상을 말하죠. 노점상(露店商)은 말 그대로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펼쳐 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소래포구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봄과 가을철에는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많았죠. 소래포구 노점상은 단순히 튀김과 닭꼬치 같은 간식거리뿐 아니라 어시장 상인들이 파는 수산물과 건어물까지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점상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다른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는데 노점상은 대부분 안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노점상이 꼭 미움의 대상이라고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파는 노점상이 모이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구청에서는 노점상을 막기만 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남동구와 소래포구 상인들은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어요. 2013년에는 ‘노점상실명제’로 소래포구 곳곳에 노점상을 분산시켰어요. 그 결과 사람들 모르게 운영되던 노점상들도 양지로 나와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 모두 노력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어요.

논현포대

논현포대는 고종 16년(1879년)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에게 명하여 축조하였어요. 조선시대 후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인천지역 연안의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축조 당시에는 호구포에 설치했다고 하여 호구포대라 불렸어요. 논현포대는 화도진에 소속되어 승기갯골수로의 방어를 담당하였죠. 그러나 1876년 강화도조약,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1894년 화도진이 철폐되면서 논현포대도 폐쇄된 것으로 추측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도진도(花島鎭圖)」를 보면 포혈이 2개가 있는 논현포대가 보이며, 옆으로 ‘호구암(虎口巖)’이라 적혀 있는 바위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논현포대의 원형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매립 공사와 부두 축조 과정에서 모두 심하게 파손됐어요. 최근 재현하며 주변 개발과 함께 새롭게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포구의 축조방식은 하단에 잡석을 쌓은 후, 중단과 상단은 장대석을 다듬어 놓고 봉토를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논현포대를 방문하면 중포 2문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중포는 1876년 운현궁에서 주조된 화포라고 해요. 중포의 길이는 123cm, 구경은 12cm, 외경은 19.3cm랍니다. 논현포대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출처(좌, 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남촌면

소래포구가 있는 남동구는 조선시대 인천부에 소속된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곳이에요. 현재 지명인 남동구도 남촌면의 ‘남’과 조동면의 ‘동’을 따서 만든 명칭이지요.

조선시대 정조 13년(1789년) 규장각에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기록한 서적인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남촌면은 1~4리로 편제되어 있으며, 호구가 359호, 인구가 1,418명(남자 630명, 여자 78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현동 지명유래

논현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쪽에 위치한 법정 땅 이름이에요. 면적은 9.52km²이며, 2022년 2월 기준 인구는 31,941명이랍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북쪽으로는 남동구 남촌도림동과 접해 있어요.

논현동의 지명유래에 관한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고개에 논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논고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논현동’이라 지칭했다는 설과 마을의 중요한 일을 고개에서 의논했다고 하여 ‘논현(論峴)’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인천부 남촌면 논현리(論峴里)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이 없어지고 다른 지역과 합쳐지면서 논현리가 당시 부천군 남촌면에 속했다가 1940년 다시 인천부 논현정이 되었어요. 광복 이후에는 1946년 논현리로 불리다가, 1949년 논현동으로, 1988년 인천직할시 남동구 논현동이 되었지요.



남동소래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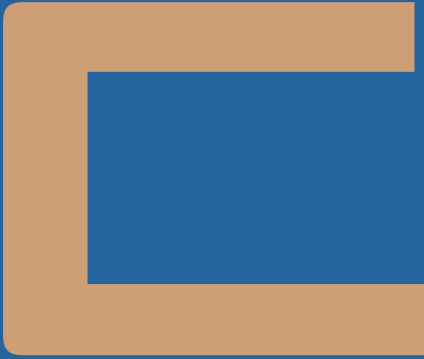
남동소래아트홀은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어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1년 11월 17일에 개관했어요. 최초에는 남동문화예술회관이라 불리다가 2014년 8월 5일 지금의 이름인 남동소래아트홀로 명칭을 변경했답니다.

남동소래아트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갤러리 등의 공간이 있어요. 대공연장은 소래극장이라 불려요. 총 703석으로 1층 좌석은 507석, 2층 좌석은 196석이에요. 대공연장에서는 뮤지컬, 콘서트, 연극,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려요. 소공연장은 스튜디오 제비라고 불리죠. 총 167석으로 서랍식 객석을 갖고 있어서 풍물 공연을 비롯한 여러 공연뿐 아니라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곳이지요. 갤러리는 화·소라 불리며, 총 면적은 525㎡입니다. 갤러리에서는 예술인의 전시나 사진전, 어린이 체험 전시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약 100년 전인 1910~192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 바다에 고래 출몰이 잦았어요. 이에 따라 고래를 잡는 포경(捕鯨) 활동이 활발했었죠. 남동소래아트홀은 과거 인천 바다를 자주 찾아왔던 고래를 추억하며, 외관을 고래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2023년 1월 1일 남동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남동소래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열리며 많은 인천 시민이 찾아오는 지역의 중요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지요.





도선장
둘레길 남동둘레길



도선장



도선장(渡船場)은 폭이 좁거나 얕아서 강이나 바다 건너편 육지까지 건너기 쉬워 사람과 배가 오가기 편했던 나루터를 말해요. 물을 건너는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었던 편의시설을 말하기도 하죠.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소래포구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재의 인천과 시흥의 경계를 이루는 뱀내천(현재의 신천(新川))의 하구로, 시흥시 월곶동으로 건너 다니던 작은 도선장이었죠.

소래포구가 도선장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염전의 개발과 소규모 어업이 활발해지면서부터예요.

1934년 소래염전이 들어서고, 3년 뒤에 국내 유일의 협궤열차가 다니는 수인선이 개통되었어요.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소금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들이죠. 소금은 생필품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한 화약 제조용 군수품이기도 했거든요. 소래염전에서 인부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나룻배 1척을 운행하기 시작한 것이 다시 도선장으로 활용된 기록이기도 해요.

본격적인 소래포구 활성화는 해방 이후, 1963년 실향민 6가구 17명이 작은 배(傳馬船)로 연안 새우잡이를 하며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포구에서 소규모 어업이 발전하였고, 1970년대 동력선으로 개량되면서 사람도 많이 오고 가게 되었대요. 현재 소래포구는 수도권과 인근에서 일 년 내내 300만 명의 인파가 포구의 정취와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 몰리는 관광명소가 되었답니다.

둘레길 남동둘레길

남동둘레길은 남동구의 주요 문화자원을 선으로 엮어 만든 도보길이에요. 총 4코스로 구성되며 총 길이는 33.5km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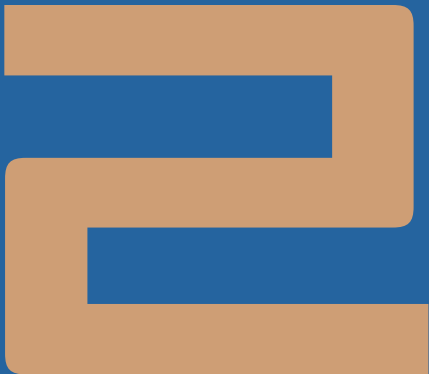
1코스는 함께나눔길이에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부터 시작하여 인천수목원을 경유해 만수산으로 이어지는 코스지요. 1코스는 총 9km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요.

2코스는 향기가득길이에요. 장수동 은행나무에서 시작하여 인천대공원을 지나 관모산과 장수천을 경유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아산으로 이어져요. 2코스는 총 10km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3코스는 하늘바다길이에요. 장아산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지나 소래포구와 새우포구를 지나가요. 그리고 늘솔길공원 양떼목장과 편백숲을 따라 청년미디어타워까지 이어지는 코스랍니다. 3코스는 총 8km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돼요.

4코스는 희망이음길이에요. 청년미디어타워에서 뚝배산과 오봉산을 지나 오봉근린공원까지 이어져 있어요. 4코스는 총 6.5km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 남동둘레길에서는 일상 속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라면 해물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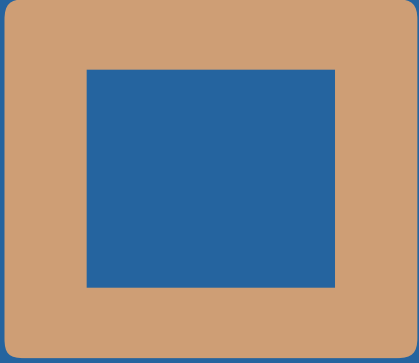


라면 해물라면

소래포구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수도권 인근에서 바다 풍광과 함께 해물라면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마트에서도 해물탕 맛을 기본으로 한 라면을 팔고 있어요. 그러나 바다에서 먹는 해물라면의 맛을 따라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마트의 해물라면은 오징어분말과 새우분말 등을 첨가한 정도거든요. 반면 소래포구의 해물라면에는 꽃게와 새우, 그리고 홍합과 가리비를 포함한 각종 조개가 듬뿍 들어가요. 포구에서 먹는 해물라면은 깊은 바다 풍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죠.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해물라면을 맛볼 수 있어요. 봄과 가을철에는 꽃게와 새우가 번갈아 국물에 빠지고, 때로는 홍합과 전복, 그리고 문어와 오징어가 들어가기도 해요.

어느 주말에 가도 소래포구의 어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랜 흥정에 출출해져 해물라면을 먹다 보면 문득 보여요. 바닷물이 가득 들어찬 만조를 배경으로 조업을 마치고 포구로 귀향 중인 어선, 소래철교 위를 지나는 전철, 그리고 짙은 밤을 밝히는 어시장과 가로등들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과 맛이 있다면 이곳 소래포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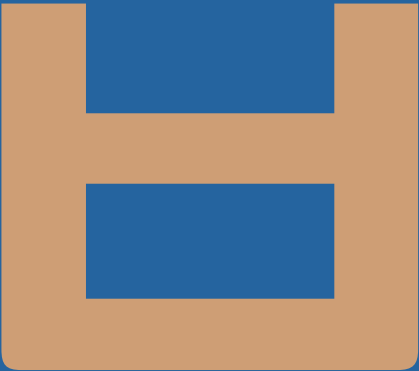


물때

물때는 조석(潮汐), 즉 바닷물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때를 말해요. 밀물과 썰물은 강, 호수, 연못 등 흐르는 물 모두에서 볼 수 있어요. 바다의 물때는 지금 몇 월인지와 달의 모양, 만조(滿潮)와 간조(干潮) 시각 등이 물흐름 속도와 조업에 영향을 줘요.

바닷물은 약 여섯 시간 간격으로 들어오고 나가요. 밀물과 썰물은 하루 두 차례 매일 반복된답니다. 물 높이 차가 가장 클 때를 '대조(大潮, 사리)', 작을 때를 '소조(小潮, 조금)'라고 해요. 밀물과 썰물은 달과 관련이 있어요. '사리'는 초승달과 보름달일 때, '조금'은 달이 하현, 또는 상현일 때 나타나요. 그래서 물때는 달이 차고 기우는 보름(15일)을 기준으로 세요. 즉, 음력 그믐과 보름은 '조금', 음력 10일부터 하루씩 지날 때마다 한 물부터 열네 물, 그리고 다시 '조금'으로 말해요.

서해는 밀물과 썰물 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로 유명해요. 소래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은 물때를 따로 달력에 적어두고 밀물에 조업을 나가고, 썰물에 조개와 게를 잡으러 갯벌에 나간답니다. 어민들은 '조금'보다는 '사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물살이 세야 고기가 활동하기 좋고, 먹이도 풍성해 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물때와 배가 들어올 때를 맞춰 소래포구 어시장에 가면 싱싱한 해산물들을 살 수 있어요. 소래포구 물때는 매월 음력 8일과 23일이 '조금' 이랍니다. 관련 내용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공개하는 물때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뱀내천
바위설화





뱀내천

인천지역의 대표 어항인 소래는 뱀내천의 하구에 위치해 있어요. 뱀내천은 뱀처럼 개천이 굽이굽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현재는 신천이라 불리는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작하여 소래포구에서 바다로 흘러들지요. 하천연장은 5.5km이고 유로연장은 8.7km, 유역면적은 17.46km²예요. 뱀내천은 만수천, 장수천, 은행천, 내하천이 합류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계를 이룬답니다.

바위 설화

소래포구 북동쪽에 해발 299m의 소래산이 위치해 있어요. 소래산은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인천의 진산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주변 오봉산이나 관모산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소래산에 재미있는 바위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인조 12년(1636년)에 소래산 정상 쪽에 있던 바위가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다 다시 서쪽 봉우리 쪽으로 굴러 올라가 소래산 중턱에 스스로 멈췄대요. 이에 고을 관리가 불길하게 여겨 왕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해 12월 아니나 다를까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새우
수인선
소래산
소서노
실향민
소래 지명유래
서창동 지명유래
소래역사관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새우타워



새우

소래포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어촌마을 가운데 하나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포구로 유명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산물이 잡히는데, 새우는 소래포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이죠. 소래포구의 새우는 계절에 따라 크기와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새우가 잡히는 계절에 따라 가격도 달라져요. 보통 봄과 가을에 새우가 많이 잡히고 맛있답니다.

특히 소래포구에서 잡히는 새우는 중국과 일본에서 잡히는 새우보다 작고 풍미가 좋으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노란색의 껍질은 얇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먹을 때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소래포구는 새우요리로도 유명해요. 봄과 가을 물 때에 갓 잡은 새우로 갖가지 조리법을 통해 만든 요리는 별미죠. 대표적으로 소금구이와 튀김, 그리고 탕도 있어요. 특히 김장철에는 생새우로 담은 젓갈을 많이 찾아요.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 새우를 대표 특산물로 여겨 지난 2020년 11월 12일 새우타워를 정식 개장했어요. 일몰 때 전망대 위에서 보이는 서해바다로 지는 해가 장관이랍니다.

수인선

수인선(水仁線)은 말 그대로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에요. 1937년 일제강점기에 개통되었어요. 1990년대 폐선된 협궤철도 수인선을 개량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경부선 지선 철도 중 하나로 가장 길지만 경부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교차할 뿐이죠. 경부선과는 안산선을 통해 한 다리 건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으로 인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 63개 역이 운영되고 있어요. 소래포구와 수인선은 역사가 깊답니다. 1958년 소래포구역 역사가 준공되었고, 1983년 소래역 을종승차권 대매소로 지정되었어요. 을종승차권대매소는 을종위탁발매소로, 한국철도공사 관할 철도역에서 공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이후 1992년 송도~소래 구간 운행중지, 1994년 소래~한대앞 구간 운행중지, 송도역과 남동역 포함 해당 구간이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어요. 1996년 1월 1일에는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 중지되었고요. 더 많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표준궤 개궤 및 복선전철화 사업' 때문이었죠. 2012년이 되어서야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소래포구의 과거 모습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방송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갯벌, 군자염전, 인천과 소래에서 생선과 새우젓을 가득 담아 수원으로 가던 어민들과 수도권 사람들 등 소래포구의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죠. 또한 철로를 지나는 우리나라 유일의 '미니열차'인 협궤열차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소래산

소래포구 북동쪽에 해발 299m의 소래산이 위치해있어요. 소래산은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인천의 진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 오봉산이나 관모산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산이에요. 소래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계를 이루죠.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1797년 8월 16일 정조는 김포에서 출발해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 릉인 현릉원으로 행차하던 도중에 인천도호부 경내에 들어와 아래와 같은 시를 남겼어요.

風旂獵獵海門廻 바람 깃발 휘날리며 해문을 돌아오니
秀色蘇來眼忽開 소래산 좋은 경치에 눈이 번쩍 뜨이네
君子峰高入指點 높다란 군자봉을 서로 가리켜 보이여라
儼非中有隱淪才 혹 그 안에 숨은 인재가 있지 않을까

소래산의 경치에 감탄해 정조가 남긴 시예요. 시의 제목은 <인천으로 가는 도중에 읊어서 부아에 걸도록 명하고 고을 수령 황운조로 하여금 쓰게 하다>입니다. 시의 제목처럼 당시 인천부사였던 황운조가 받아써서 인천도호부 관아에 걸어두었을 것이라고 하죠.

소래산은 지금도 많은 등산객에게 사랑받는 곳이에요. 등산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려서 남녀노소 누구나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최근에는 소래산 단풍이 만발하는 시기에 맞춰 만의골에서 가을 음악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소서노

소서노는 2006~2007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주몽>을 통해 많이 알려졌어요. 배우 한혜진이 연기한 소서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군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상인이자 군사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자란 것으로 나와요. 극 중 소서노는 고구려 건국에 직접 기여하고, 그녀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 형제가 백제를 세웠죠. 그러나 드라마 <주몽>은 아시다시피 고구려 건국을 둘러싼 허구의 이야기예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소서노(召西奴)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어요. 다만 졸본(卒本) 사람 연타발(延陀勃)의 딸로, 처음 북부여왕(北夫餘王) 우태(優台)에게 시집가서 아들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고 전하죠.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내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소서노가 많이 도와줘 왕비로 삼고 중히 여겼다고 해요. 이후 본처인 예씨(禮氏)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孺留)를 태자로 삼고, 비류는 미추홀(彌鄒忽)에,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워 후에 백제라고 불렀죠. 여기서 비류가 터를 잡은 미추홀이 지금의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남동구에서는 ‘인천 정체성 찾기’, ‘남동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도로 소서노를 앞세웠어요.

남동구 소래산(蘇萊山)과 신라 때 인천의 옛 이름인 소성(邵城)이 백제의 시조인 소서노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2016년 16회 소래포구축제는 ‘소서노 올레’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어요. 시작부터 소서노 퍼레이드, 소서노 주제의 창작극과 무용, 그리고 소래포구의 유명한 수산물 체험도 할 수 있었죠. 다만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향민



실향민(失鄉民)은 한자 뜻 그대로 고향을 잃은 사람을 말해요. 고향이 없어지지 않는죠. 우리는 언제든 시간과 마음이 내키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향민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6·25전쟁(한국전쟁) 중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해요. 이들은 휴전 이후 고향인 북쪽으로 넘어갈 방법이 막혔거든요.

1953년 4월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총인구 27만 8천 명 중 7만 8천 명이 북한 출신이었다고 해요. 거의 3명 중 1명꼴로 실향민이었던 셈이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 당시 북한 입장 때 관중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니죠.

소래포구에도 북한 실향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원규 소설가가 1987년 소래포구를 배경으로 실향민의 아픔을 풀어낸 소설 『포구의 황혼(1987)』을 쓸 무렵, 당시 소래포구의 70~80%가 실향민이었어요.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까지 노립나루라 불렸던 지금의 소래포구 일대에는 10여 명이 사는 판잣집이 전부였대요. 실향민 6가구 17명이 전마선, 범선(무동력선)으로 연안에서 새우잡이를 시작한 것이 소래포구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수도권 최대 관광지이지만 여전히 소래포구에는 북한 실향민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황해도 웅진상회’, ‘개성상회’, ‘연백상회’ 등의 간판을 볼 수 있거든요. ‘웅진’과 ‘연백’ 그리고 ‘개성’은 북한의 지명이에요. 실향민들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기에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계신 분들도 거의 80대 이상 나이가 많으시죠. 아직 인천의 20~30대 중에는 이분들의 자손인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소래포구는 실향민 후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래 지명유래

소래(蘇萊)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먼저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 관련된 설이랍니다. 신라 무열왕 7년(660년) 신라와 중국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어요. 당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황해를 건너와 소래에 주둔했다고 해요. 이에 ‘소정방이 왔다’는 뜻으로 소래(蘇萊)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옛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소정방은 금강 하구인 기벌포(伎伐浦)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정방과 연관된 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소래가 ‘산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을 뜻하는 우리 옛말 ‘솔’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설도 있대요. 산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지역에 산과 냇가, 그리고 소나무가 많아서 ‘솔내’라고 불리다 소래가 되었다는 설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받는 주장이 있어요. 소래는 ‘높은 곳’을 뜻하는 우리 옛말 ‘수리’가 변형되어 소래가 되었다는 설이에요. ‘수리’는 ‘사라, 사리, 서리, 소리, 솔, 수락, 술, 시루, 시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되는데 소래 또한 이런 방식으로 수리가 변형된 명칭이라는 설이랍니다. 1486년 발간된 『동국여지승람』이나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 1919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지형도에서 소래산의 소래가 한자로 ‘蘇來’로 표기되어 있어요.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蘇萊’로 언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서창동 지명유래

서창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쪽에 위치한 법정 땅 이름이에요. 면적은 4.05㎢이며, 2023년 4월 기준 인구는 57,926명이랍니다. 동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북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이 접해 있어요. 서창동의 지명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세금으로 거둔 농작물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한양으로 운반했어요. 인천지역 남동면과 조동면의 백성들은 수확한 곡식을 20여 리나 떨어진 북창이나 동창까지 가서 세금으로 내야만 했어요. 남동면과 조동면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가는 길이 너무 먼 것을 관아에 건의하여 새롭게 서창을 짓게 되었죠. 이 때문에 이 지역이 서창동이라 이름 붙였다는 설이랍니다.

또 다른 설로는 서해 바닷물이 서창동까지 드나들면서 포구가 생겼는데, ‘배가 마을로 많이 들어와 서해에서 창성하랴’라는 뜻으로 서창이라 불리게 되었대요. 서창동은 조선시대 인천부 다소면 설래리(雪來里)와 곡촌리(谷村里), 독곡리(獨谷里) 등의 지역으로 골말, 곡촌으로 불렸으나 1883년 개항 이후 원래의 명칭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이 없어지고 합쳐지면서 독골, 경재, 장굴, 설래 마을을 합하여 서창동이라 불러요. 당시 부천군 남동면에 속했다가 1940년 다시 인천부 남속정이 되었죠. 광복 이후에는 1946년 서창동으로 불리다가, 1968년 남구에 속하고, 1988년 인천직할시 남동구 서창동이 되었답니다.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은 2012년 6월에 개관한 공립박물관이에요.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소래지역의 역사와 민속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어요.

소래역사관 전시실은 4개로 구분돼요. 1층의 소래염전 구역과 소래포구 구역, 2층의 소래갯벌 구역, 수인선 구역이랍니다.

소래염전 구역에서는 국내 제일의 천일염 생산지였던 소래염전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감상하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소래포구 구역에서는 소래지역의 어업과 경제생활, 포구의 형성과 발전, 어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디오라마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래갯벌 구역에서는 갯벌과 관련된 삶, 개항기 이양선의 출몰과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고요. 수인선 구역에서는 수인선의 건설현장과 협궤열차, 그리고 소래철교와 관련된 전시를 즐길 수 있어요.

소래역사관은 다채로운 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래에 관한 궁금증을 가진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죠. 문화관광해설사님의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소래포구의 역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999년 6월 폐염전을 중심으로 최초 개장하였어요. 이곳에 있던 염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하던 곳이죠.

이후 갯벌, 갯골, 폐염전 지역의 다양한 생물 군락지 및 철새 도래지를 관찰하고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예요. 2009년 5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습지 생태와 천일염 생산 시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생태전시관이 있어요. 직접 천일염 생산 및 습지 내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과 누구나 체험 가능한 해수욕장도 인기랍니다.

또한, 드넓은 갈대밭과 빨간 풍차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최근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거리공연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에 시장이 들어선 것은 1930년대부터예요. 포구에 어선이 드나들게 되자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어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1970년대 인천 내항이 준공되었어요. 이후 정박할 곳을 잃은 소형어선들이 소래포구로 몰려 들면서 상인이 늘어나게 되었대요. 2007년 당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는 총 322개의 좌판이 형성되어 꽃게, 새우, 젓갈 등의 판매가 성행하였죠. 소래어시장은 전국 3대 젓갈시장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던 중 2017년 3월 어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때 373개의 좌판 중 244개가, 40개의 점포 중 15곳이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죠. 이에 남동구에서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착수했어요.

2020년 12월에 지금의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해요.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의 구조로 약 3,045㎡의 규모예요. 봄철에는 꽃게를 사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가을철에는 김장에 필요한 젓갈을 사기 위해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또한, 주변에 소래역사관이나 새우타워 등의 관광명소가 있어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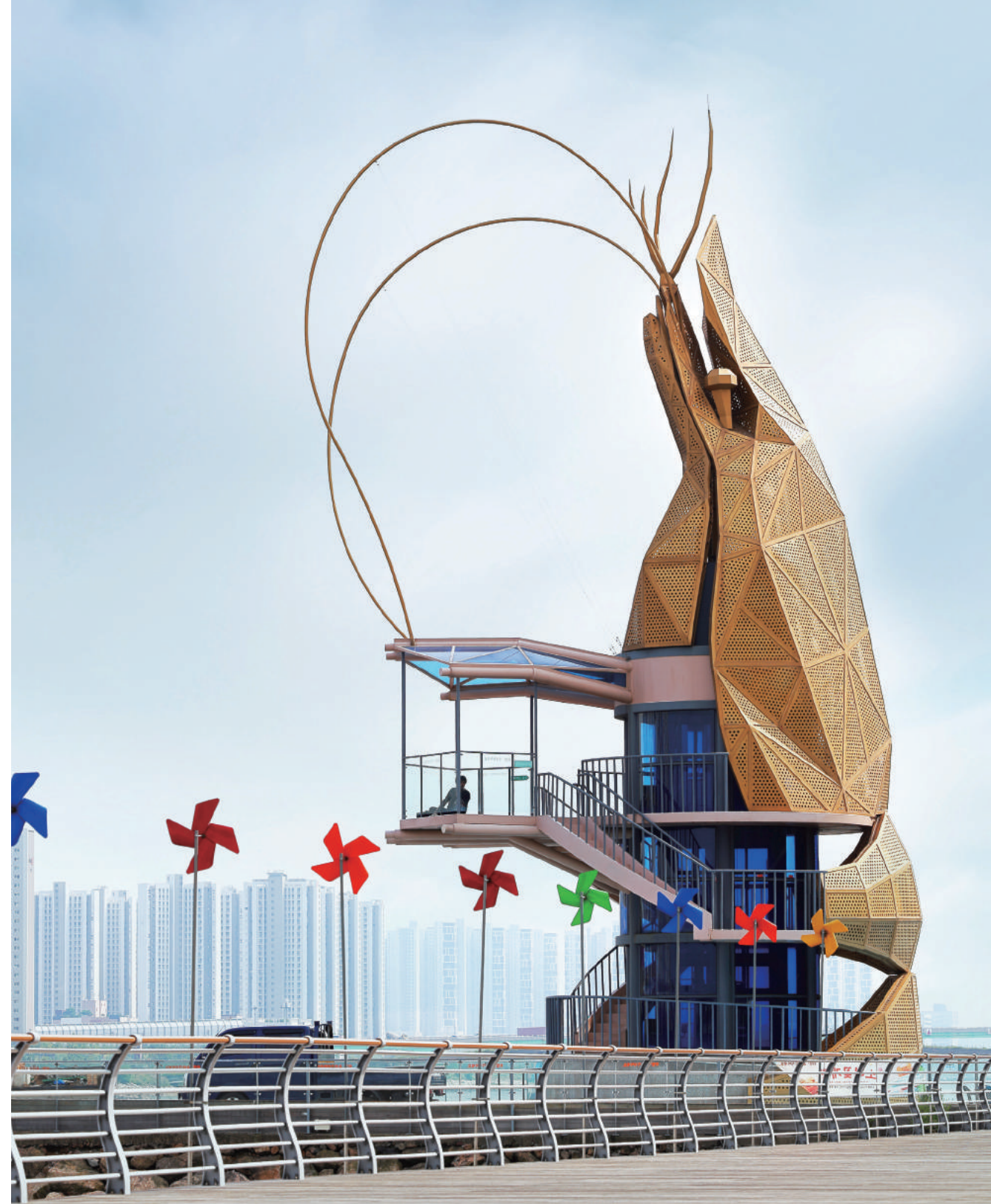
새우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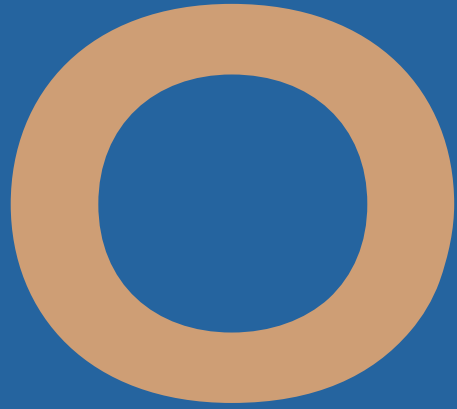
랜드마크(Landmark)는 본래 탐험가나 여행자, 순례자가 어떤 장소를 돌아다니다 원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표식을 해둔 것이에요. 오늘날은 특별한 건물이나 조형물처럼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랜드마크라고 해요. 만남의 장소이자 여행할 때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가 되었죠.

남동구에서도 소래포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새우타워를 지었어요. 새우타워는 2020년 11월 12일, 소래포구 어시장 근처에 세워진 높이 21m, 폭 8.6m의 새우 모양 전망대예요. 오랫동안 사용 않던 소래포구 옛 5부두 주변을 정리하여 해변 카페와 산책로, 휴게시설과 잘 어우러지는 전망대를 만든 거죠.

새우타워는 소래포구 대표 특산물인 새우를 본 떠 만든 조형 전망대예요.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새우의 모습이죠. 딱딱한 등껍질에 둘러싸인 새우머리에 기다랗게 늘어진 수염, 그리고 가느다란 다리까지 만들었어요. 등껍질은 철망처럼 안이 비쳐 보여요. 야간에는 타워 안쪽으로 7가지 색의 조명이 반짝여요. 타워 주변 바닥은 푸른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여 바닷속의 새우를 잘 표현했답니다.

낮에 3층 전망대에 올라서면 소래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타워 내부에는 보행로, 계단과 지상과 전망대를 잇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타워에서 나오면 소래포구부터 해오름광장을 연결하는 긴 산책로가 보여요. 저녁 무렵 탁 트인 바다를 따라 걷다 보면 붉게 가라앉는 낙조도 볼 수 있어요.





어항
염전
염부꾼
엄마없는 하늘아래 영화
윤후명 소설가
임평모 시인





어항

어항은 어선이 정박하거나 잡은 어획물을 육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항구예요. 그래서 어선이 안전하게 드나들고 머물 수 있어야죠. 어획물을 배에서 육지로 내리는 작업이 편리하고 근처에 판매할 경매장 및 어시장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는 해안이 굴곡진 모양을 띠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천연적인 항만의 형성이 어렵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도 어선의 출입과 정박에 유리한 곳이 많았죠. 전국의 어항은 196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1969년 「어항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및 이용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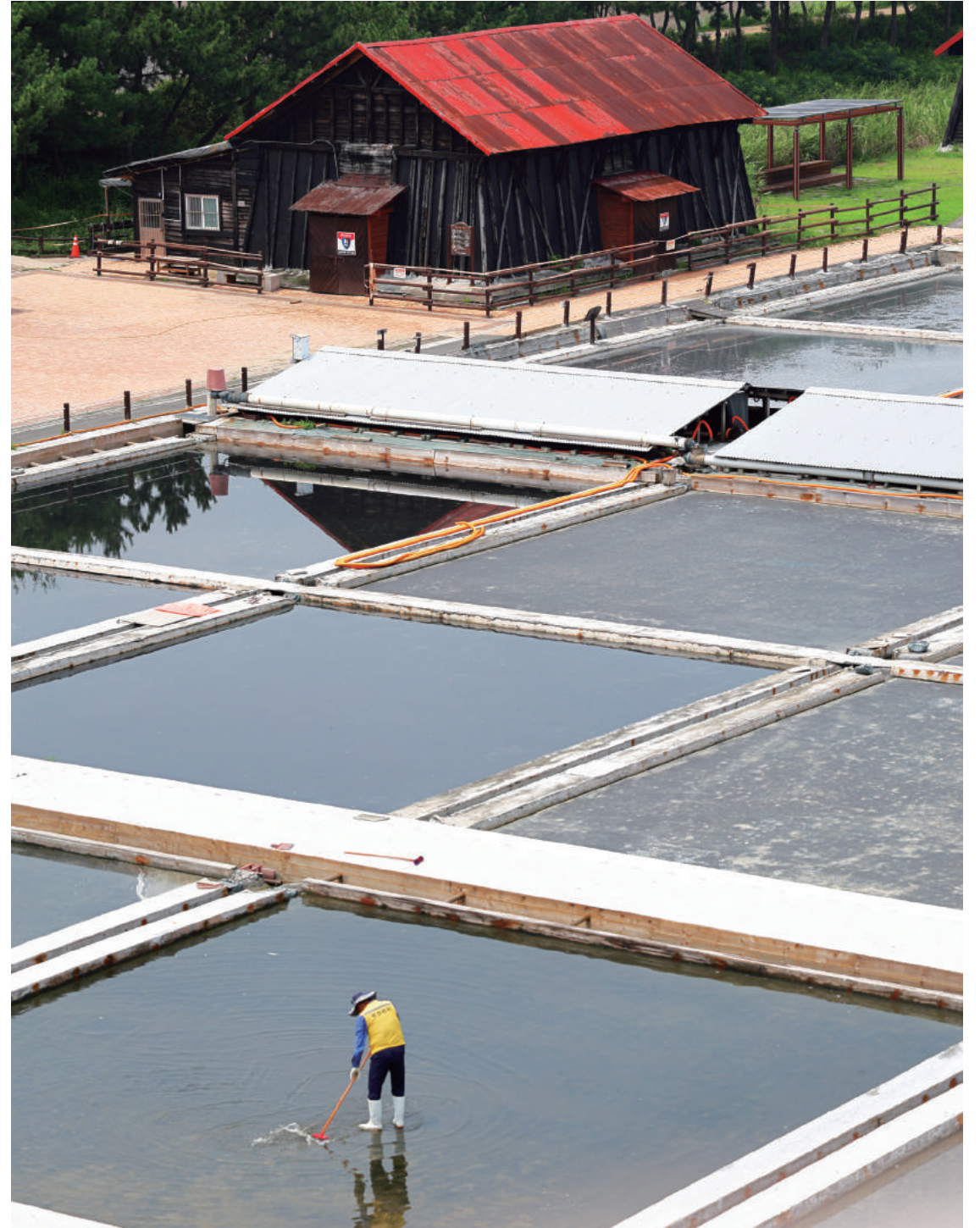
소래포구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항이에요. 1937년 일제강점기에 근처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정박하면서 어항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후 1974년 인천내항이 만들어진 후 소형 어선이 소래포구로 많이 모여면서 본격적인 어항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현재에도 소래포구는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염전

소래포구는 본래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러던 중 일제강점기인 1907년 우리나라에 천일염 생산지를 만들 곳을 찾다가 소래포구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당시 염전 조성 대상지로 인천부 남촌면·서면·조동면·부내면·신현면·주안면이 거론되었고, 최종적으로 갯벌 면적이 가장 넓은 남촌면과 조동면이 선정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염전을 조성하기 시작한 건 1920년 9월부터예요. 염전 조성 사업은 1921년 12월까지 진행되었고 전체 면적 2,975km²의 규모로 조성되었죠. 193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래포구 인근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도시계획으로 인해 염전이 폐쇄된 1996년 7월 31일까지 소금생산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역사관에서 염전 생산의 흔적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염부꾼

‘염부꾼’은 ‘염부(鹽夫)’에 ‘-꾼’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리고 ‘-꾼’은 주로 몸을 이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던 말이지요. 조선시대에는 염간(鹽干), 혹은 염노(鹽奴)라고 불렸어요. 요즘에는 염부꾼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채취원, 혹은 염전노동자라고 해요. 염부는 물을 푸거나 소금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경험이 나 능력에 따라 상염부와 하염부로 부르기도 했답니다.

염전 노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3월에서 10월까지예요. 소금이 나는 시기는 4월에서 6월, 장마철인 7월과 8월은 쉬고, 다시 10월까지 일하는 식이에요. 염부꾼들은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염부꾼의 일은 ‘물 푸기’, ‘물 조정하기’, ‘소금 걷기’ 등으로 나뉘어요. ‘물 푸기’는 바닷물을 물레방아 같이 생긴 수리채로 퍼내는 작업, ‘물 조정하기’는 바닷물에 물을 더 넣거나 빼서 염도를 조정하는 일, ‘소금 걷기’는 넓적한 널빤지로 밀어 모은 소금을 광주리에 담아 소금창고에 거두는 일이에요.

염부꾼의 일은 피약벌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소금을 날라야 하기에 매우 고되답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해마다 3월이면 염전에서 ‘채렴식(採鹽式)’이 열렸어요. 염부꾼과 가족, 이웃들이 모여 그해 첫 소금을 뜨는 행사예요. 염전 일은 단순히 바다에서 소금을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물과 햇빛만큼 많은 염부들의 땀도 섞여 있었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



사진출처: EBS 홈페이지

그중에서도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이원세, 1977)는 가난했던 세대의 불우한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담아 큰 감동을 주고 성공을 거두었던 영화죠. ‘엄마 없는 하늘 아래’는 197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한극장에서 상영된 극영화예요. 영화는 실제 13세 김영출 군의 사연에서 비롯됐어요. 영출 군은 자신의 상황을 일기로 썼어요. 이 일기를 본 보건원 직원이 군청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서울신문사 기자가 사건을 보도하여 세상에 알려졌대요. 이후 염재만 소설가가 영출 군을 만나 사연을 듣고 아동소설로 엮었어요.

1970~80년대 영화에서는 소래염전과 소래포구의 옛 모습이 종종 나와요. 영화 속에서는 지금 없어진 염전과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수인선 협궤열차로 운반되었죠. 넓게 펼쳐진 갯벌과 수평으로 펼쳐진 아담한 염전, 그리고 곳곳에 있던 소금창고도 보여요.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는 대부분 삶의 치열함을 담은 ‘가난한’ 영화였어요. ‘감자’(변장호, 1987)의 ‘복녀’가 그랬고, ‘만다라’(임권택, 1981)의 ‘지산’은 어머니한테 버림받죠.

이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동명의 영화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랍니다.

김영출 군은 바닷가 마을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였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켰어요. 가사 일을 돌보던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죠. 영출 군은 학교도 빠지며 동생들과 아버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염전에서 일하는 소년가장이 돼요. 다시 불행이 닥쳐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자신과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져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죠. 마지막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 형제가 다시 모여 살게 되면서 끝나요.

1970년대 이 영화는 큰 이슈가 되었어요. 시대상을 담고 있었다고 평가되거든요.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불우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대요. 영화는 이후 속편과 3편까지 제작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윤후명 소설가

인천의 옛 풍경을 그린다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거 인천을 그린 작가들은 수인선, 소래포구, 갯벌, 차이나타운, 송도유원지, 연안 부두, 부평 미군부대, 강화도 건평포구 등 인천 곳곳의 풍광과 정취를 소설에 담았어요. 특히 수인선 협궤열차가 인상적이었는지 1980년대 이전 인천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에는 꼭 한 번씩 나온답니다.

언제나 뒤통거리는 꼬마열차의 크기는 보통 기차의 반쯤 된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며 앉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
사람과 서로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수인선 협궤열차이다.

위의 글은 소설가 윤후명이 1992년 발표한 『협궤열차』라는 소설의 일부예요. 협궤열차는 작품 속 주인공 ‘나’에게 딸과 만남을 이어주는 탈 것이자 “외롭고 비린내 나는 생활에 찌든” 바닷가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지요. 어느 날 헤어진 옛 연인이 문득 찾아와 둘은 협궤열차를 타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요. 증기 뿜는 오래된 열차에서 ‘나’는 “밥과 사랑, 이 두 거대한 허기점 앞에서 나는 이날 이때까지 허덕여 온 것이 아니었던가.”하고 떠올려요.

작품은 누군가를 만나고 떠나보내는 협궤열차와 우리 인생을 빗댄 소설이라고 해요. 1980년대 갯벌에서 조개를 잡아 인천으로 팔러 가던 어민들의 고단한 삶과 소래철교 부근 어촌 풍경을 그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협궤열차의 모습과 특징, 그 당시에만 볼 수 있던 열차 안팎의 풍경과 에피소드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문학작품에도 협궤열차가 등장해요.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서는 “왠지 모르게 지구 끝을 작은 기차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수인선을 달리는 협궤열차의 모습을 그렸어요. 최근 인천을 소재로 한 10여 편의 소설을 꾸준히 발표한 양진채 작가가 다른 작가들의 소설 속 인천을 발굴해 산문집으로 엮었대요. ‘소설 속의 인천-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라는 책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임평모 시인

임평모 시인은 <인천문단>에서 신인상을 받은 이후 <현대문학>에 수필을, <시와 의식>에 평론과 시를 발표하면서 문학창작 활동을 해왔어요. 특이하게도 임평모 시인은 오히려 의사로 유명해요. 국내 최초 단식요법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가 발표한 작품에는 소래포구와 관련된 시도 있어요

오늘도 녹 슬은 세월을 등에 업고,
뒤뚱치기 농어촌의 애환을 실어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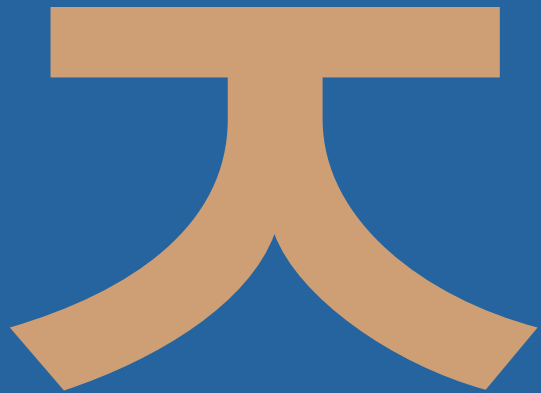
꼭두새벽 송도 숲속의 선잠을 깨우며,
갯벌의 어린 게나 조개를 놀라게 하고

땃아빠진 도롱태를 굴리듯,
쇠바퀴의 피로와 땀굴고

머리에 두른 검은 상장을 만져가며
까마귀 울음서린 들판을 달려간다.

위의 시는 임평모 시인의 ‘수인철마’예요. 여기서 ‘수인’은 수인선, ‘철마’는 그위를 달리던 협궤열차를 말해요. ‘갯벌’과 ‘농어촌’은 소래포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인이 소래포구와 협궤열차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협궤열차가 수인선을 달릴 무렵 소래포구와 인근의 어촌풍경을 시인의 정서로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소래포구와 협궤열차는 작가들에게 특별한 감상을 안겨주었나 봐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소래포구와 협궤열차를 그린 작품들이 꽤 많답니다. 이밖에도 하재봉 시인은 소래포구의 망가진 목선과 버려진 소금창고를 보며 폐허 이후의 감상을 말해요. 이세룡, 이창기, 장석남 시인은 협궤를 의인화하여 우리네 고단한 삶과 비교하기도 했답니다. 또 한창원 시인과 이가림 시인도 ‘협궤열차가 지고 간 하루’와 ‘내 마음의 협궤열차’에서 갯벌풍경과 협궤열차를 되새겨요.



첫갈
장도포대
조동면



젓갈

젓갈은 날것의 동물성 재료를 소금과 양념에 절인 반찬을 말해요. 생선의 살이나 알, 창자나 아가미, 조개, 새우 등 해산물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고기 등 고기도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 소금에 파묻힐 정도로 들이붓고 절여 숙성시킨 다음 지역마다 각종 다른 양념으로 마무리해요.

옛날에는 생선과 조개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기술이 부족해 소금에 절이거나 젓갈로 만들어 물로 날랐답니다. 그래서 바다 주변 마을은 지역마다 젓갈 음식이 발달했어요. 충남 홍성군의 광천젓갈, 전북 부안군의 곰소젓갈, 그리고 인천의 소래포구 젓갈이 풍부한 감칠맛과 향으로 유명해요.

소래포구의 젓갈은 다양한 해조류와 멸치, 새우 등으로 만들어요. 특히 소래포구의 새우젓갈은 철마다 다른 이름을 붙일 정도로 유명해요. 연초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은 ‘풋젓’, 6월은 ‘육젓’, 가을은 ‘추젓’이라고 불러요. 이 중 ‘육젓’이 최상급품인데, 이때 새우가 알을 품어 덩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추젓’은 김장철에 잡히기에 김치를 발효하는데 쓰여요. 젓갈은 김치를 삭혀 간과 향, 그리고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래포구 젓갈은 그 자체로 맛있어서 보통 밥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젓갈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요리나 멸치볶음밥, 볶음면 등에도 들어가요. 맛뿐만 아니라 젓갈에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라이신과 트레오닌의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도 풍부해요. 그래서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철마다 젓갈을 사기 위해 소래포구를 방문한답니다.

장도포대

조선시대 후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인천지역 연안의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 고종 16년(1879년)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에게 명하여 장도포대를 축조하였다고 해요.

장도포대는 ‘노루목’, ‘노렘’이라 불리는 구릉에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가 현재 소래철교 옆이에요. 장도포대는 화도진에 소속되었으며, 1876년 강화도 조약,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1894년 화도진이 철폐되면서 같이 폐쇄된 것으로 추측돼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도진도(花島鎭圖)」를 보면 포혈이 3개가 있는 장도포대가 보이며, 포의 배열을 보면 2문은 바다 방향인 뱀내쪽을 향하고 있고 1문은 동남쪽을 향해 외곽과 내곽을 수비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도포대지는 2003년 지표조사, 2004년 발굴조사를 거쳐 2005~2006년에 복원되었어요. 원형은 포혈이 3개있는 모습이지만, 지형 여건으로 인해 포혈 2개만 복원되었어요. 장도포대지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동면

소래포구가 있는 남동구의 명칭은, 조선시대 인천부에 소속된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현재 지명인 남동구도 남촌면의 '남'과 조동면의 '동'을 따서 만든 명칭이랍니다.

조선시대 정조 13년(1789년) 규장각에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기록한 서적인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조동면은 1~3리로 편제되어 있었고, 원호 233호, 인구 703호(남자 315명, 여자 388명)로 기록되어 있어요.



축제 소래포구축제
철교





출처: 남동구청 홈페이지

축제

소래포구 축제

소래포구 축제는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예요. 축제는 2001년 10월 처음 개최했어요. 제1회 축제의 명칭은 ‘소래포구 새우맛갈 축제’였죠. 김장철 젓갈 성수기에 개최해 새우젓과 관련된 상식,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젓갈 담그기 경연대회, 새우아가씨 선발대회 등 다채롭게 운영되었지요. 2002년 제2회 축제부터 지금의 이름인 ‘소래포구 축제’가 되었어요.

2023년 올해는 어느덧 23회째를 맞이해요. 소래포구 축제는 처음 운영할 당시에는 작은 지역 축제로 운영되었어요.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대규모 축제로 성장해왔지요. 재래식 어항에서 열리는 특색 있는 축제로 알려졌답니다.

올해 축제의 중심주제는 ‘소래바다’예요. 하위주제로 ‘포구(경관)’, ‘수산물(먹거리)’, ‘어시장(삶)’, ‘상인(사람)’, ‘염전·협궤열차(기억)’를 내세워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축제장은 메인무대존·아트존·체험존·주민자치존·버스킹존·먹거리존으로 구분하여 운영돼요.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지요. 특히, 어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어시장 상인 포스터’와 ‘소래포구 기억 기록 영상’을 제작하여 더욱 의미가 깊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소래포구 축제는 매년 9~10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어요. 2022년에 개최된 제22회 축제에는 약 40만 명이 방문하면서 명실공히 수도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철교

소래포구 앞에는 수인선 소래철교가 있어요. 1937년부터 1995년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를 잇는 철교로 운영되었지요. 1994년까지는 협궤열차가 다녔어요. 협궤열차가 다닐 때도 인천에서 시흥까지 철교로 사람들이 오갔대요. 열차 운행정지 이후부터는 해마다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래포구의 인도교로 활용되고 있어요.

본래 소래철교는 일제강점기에 소래염전의 소금과 경기도 여주시와 이천시의 쌀을 인천항으로 나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해방 이후에는 소래와 월곶을 건너는 협궤열차가 다니는 목적으로 활용됐어요. 특히 월곶동 주민들은 소래포구 쪽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오갈 길이 없어서 소래철교로 걸어 넘어갔다고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열차 다니는 철교를 가로지르는 건 불법이죠. 당시 예산 문제로 다른 인도교가 설치되지 못했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단속도 못하고 방치했죠.



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사진작가 김용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천과 시흥을 잇는 42번 국도(수인로) 도로망이 생기고, 소래포구가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소래철교를 건너는 관광코스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나 소래철교는 보행자 통행시설이 없는 단순 철교였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사진을 보면 협궤열차 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고, 때로는 추락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했대요. 그 탓에 1994년에는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1996년에는 수인선 협궤열차의 선로를 아예 없앴어요. 이후 철교의 바닥과 난간을 연결하여 인도교로 바꾸었어요.

이제 소래철교는 매년 소래포구를 찾는 연인들의 명소라고 해요. 함께 손을 잡고 철교를 건너면 헤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리고 철교를 건너면서 소원을 빌 때 마침 소래포구로 드나드는 배가 바로 발밑을 지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칼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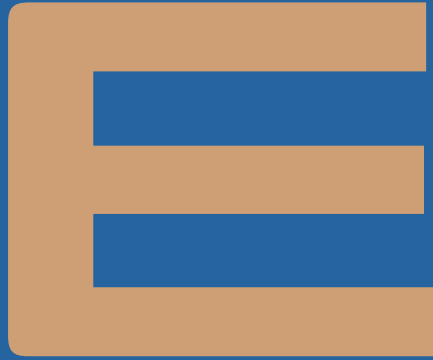
칼국수

칼국수는 밀가루 반죽을 펴쳐서 칼로 썰어 뽑기 때문에 칼국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영어로는 'Noodle Soup' 또는 'Kalguksu',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Knife Noodles'나 'Knife-cut Noodles'라고도 불렀대요. 이름 덕에 외국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국수에 칼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반죽을 칼로 썰는 방식은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우동이나 소바, 중국의 수공면(手工面, 서우궁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칼국수는 네모난 단면의 면이 일반적이지만 국물 내는 방식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답니다.

경기도는 육수에 닭고기를 넣어 깊은 맛을 내고, 서울과 충청도는 사골육수에 쇠고기 고명이나 디포리(밴댕이)를 섞기도 해요. 강원도 영서와 영동은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한 장칼국수를 만들고, 전라도는 칼국수에 팥을 넣기도 한답니다.

소래포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가깝지만 바닷가에 인접해서인지 해물 칼국수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소래포구 어시장과 바닷가 부근에는 칼국수 식당이 많아요. 보통 가게 안팎에 둔 수족관에는 칼국수와 해물탕에 넣을 조개, 가리비, 전복, 오징어, 홍합 등이 가득하죠. 소래포구에서는 각종 해물이 진하게 우려난 국물에 손칼국수를 넣어 먹는답니다. 때로는 해물탕보다 더 저렴하고 푸짐한 해물을 해물 칼국수로 즐길 수 있으니 한 번 맛보는 건 어떨까요?



튀김



튀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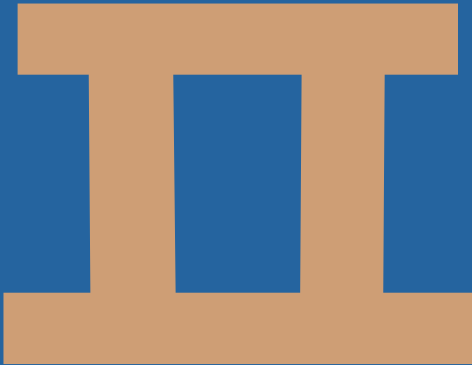
튀김은 끓는 기름에 고기나 생선, 혹은 채소를 단시간에 익힌 요리를 말해요. 밀가루나 빵가루, 또는 녹말이나 계란을 튀김옷으로 입히거나, 튀김옷 없이 바로 튀기기도 하죠. 조리 과정에서 재료의 수분이 증발하고 기름을 흡수하여 특유의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식단이에요.

소래포구도 갯 잡은 각종 수산물을 이용한 튀김이 유명해요. 꽃게튀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쭈꾸미튀김 등 살이 통통하고 식감이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죠. 어느 튀김집에서는 큰 새우를 잡아 빵가루와 녹말을 입혀 더듬이와 다리 모양까지 살린 눈꽃새우도 팔고 있어요.

튀김은 기름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었는지가 대중화에 영향을 끼쳐 왔어요.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에 연료로 석탄을 쓰면서 동물성 기름이 저렴해져 튀김이 널리 퍼졌어요. 일본은 에도 막부 때 유채꽃을 대량 재배하면서 식물성 기름 가격이 저렴해져 튀김이 서민 음식으로 떠올랐고요.

한국은 조선시대만 해도 기름이 귀했어요. 당시 부각이나 유과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은 양반과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밀가루는 한국전쟁 이후, 식용유는 1970년대 이후 많아지면서 튀김이 대중화되었어요.

요즘은 동물성·식물성을 막론하고 기름이 흔해졌어요. 전국 어디를 가나 빵가루와 녹말을 입혀 기름에 튀긴 음식이 대중적인 간식거리가 되었죠. 오징어튀김, 쥐포튀김, 새우튀김, 김말이튀김 등을 분식집과 식당에서 한 번쯤은 드셔 보셨을 거예요. 지역마다 특산물을 이용한 튀김이 유행하답니다.



팔경 인천팔경
포구
파시
풍어제



팔경 인천팔경

2020년 4월 남동구청에서 발간한 『함께 떠나는 남동구 역사기행』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인천팔경 관련 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호구낙조(虎口落照) 호구포의 저녁 노을
 팔미귀범(八尾歸帆) 팔미도를 돌아드는 돛단배
 옥구어적(玉龜漁笛) 옥기섬 어부의 피리 소리
 장도단풍(獐島丹楓) 장도의 단풍
 계관암화(鷄冠岩花) 계관섬의 기암
 문학청람(文鶴晴嵐) 문학산의 아지랑이
 청룡부운(靑龍浮雲) 청룡 모양의 구름
 오봉명월(五峯明月) 오봉산의 밝은 달

이 시는 인천의 팔경을 소개하고 있지만, 팔미도와 문학산 그리고 장소를 알 수 없는 청룡부운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개의 비경이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호구낙조’의 호구는 남동구 논현동의 호랑이 아가리 모양의 호구포를 말하며, ‘옥구어적’의 옥구는 남동구 고잔동의 옥기섬을 말해요. ‘장도단풍’의 장도는 남동구 장도포대가 있는 장도를 말하며, ‘계관암화’의 계관은 남동구 앞바다의 계관섬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봉명월’의 오봉은 남동구의 오봉산을 말하지요. 이처럼 남동구에는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비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구

소래포구에서 ‘포구(浦口)’는 강이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드는 어귀를 말해요. 포구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항구(港口), 어항(漁港)도 있어요.

한국에서 포구는 조선 후기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많이 생겼어요. 17세기까지는 어류, 채소, 세곡운송, 군사 방어 기능을 주로 하던 포구는 점차 상업중심지로 바뀌어 갔답니다. 18세기 이후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 등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등포, 마포 등 서울에서 ‘-포’로 끝나는 지명도 해안가나 물가에 위치해 있던 포구 이름에서 왔어요.

소래포구는 1934년 소래염전이 들어서고, 1937년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발전했어요. 소래포구는 어항으로서 역할보다 처음에는 소래염전의 인부와 염부의 이동을 위해 나룻배 한 척을 운행한 것이 전부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1963년 실향민 6가구 17명이 작은 고깃배로 연안에서 새우잡이를 하면서 지금 모습의 기틀이 마련되었죠. 본격적인 어항의 모습은 1973년 인천내항이 개발되면서 작은 고깃배들이 소래포구로 옮겨 파시를 형성하면서부터 갖추게 되었어요.

최근 소래포구는 근처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소래포구의 어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고, 수변경관을 조성했고, 새우타워를 만들었어요. 이런 노력으로 소래포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어요.





파시

파시(波市)는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 선 시장을 말해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파시는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을 뜻해요. 조기, 민어, 새우 등 어장(漁場)에서 물고기를 낚는 고깃배와 그것을 사려는 상선이 모여 사고 팔았어요. 조선시대 특유의 상거래 관행이었다고 해요. 요새는 해상의 파시가 어장 근처의 포구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파시하면 흔히 바다와 육지에서 벌어지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모양을 동시에 띄게 되었답니다.

소래포구에 있는 어시장도 1970년대 새우파시에서 시작됐어요. 1974년 인천 내항이 만들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새우잡이 고깃배들이 소래포구에서 파시를 열었던 거죠. 마침 소래포구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 있고 수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았어요. 포구에서 어민과 상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식점과 숙박시설들이 모여 어촌마을이 발달하게 된 거죠. 2020년 새로 단장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오랜 역사를 이어가며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어항으로 자리 잡았어요.

소래포구는 아직도 파시의 모습이 보여요. 때로는 어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경매도 열린답니다. 물때에 맞춰 소래포구에 가면 수레에 담긴 새우상자가 위판장 바깥까지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철마다 새우뿐만 아니라 꽃게, 디포리, 우럭과 광어 등을 어민들에게 직접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소래포구로 모인답니다.

풍어제

지역의 수호신인 별신(別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별신제(別神祭)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는 벨신·배생이·별손·벋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런 별신제를 지내는 곳이 농촌이면 풍농제(豐農祭)라고 했고, 시장이면 난장(亂場)굿이라 했고, 어촌이면 풍어제(豐漁祭)라고 불렀어요. 풍농제를 지내는 농촌과는 달리 항상 바다의 변화무쌍함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촌에서 지내는 풍어제는 보다 신앙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풍어제는 그 제사가 진행되는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 제사의 내용이나 형식, 절차 등이 제각각이었대요. 배를 만들어 처음 띄울 때 지내는 벋고사의 형태도 있었고, 바다의 용신과 해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용왕굿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소래포구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풍어제가 운영되어 왔어요. 안전한 어로 활동과 함께 만선을 바라는 어민들의 염원을 전통예술로 승화한 풍어제는 소래포구 축제 기간에 축제장에서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출처: 남동구청 홈페이지



출처: 남동구청 홈페이지



호구암
협계열차
해수김치
활어회
회화 소래포구회화
해오름광장
해넘이다리
한국화약 인천공장





호구암

남동구 논현동 서남쪽 지형이 호랑이의 아가리와 닮았다고 해서 호구포라 불렸어요. 그리고 호구포 뒷산인 오봉산 기슭에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의 검고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구암이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겼어요.

호구암과 연관된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호구암이 바다 건너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를 집어삼킬 듯이 응시하고 있어서, 대부도에서 개를 키우면 번식을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이 빈번했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소래포구 일대에 염전을 만들면서 호구암이 매몰되었어요. 그 이후로 대부도에서 개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동공단이 개발되면서 호구포와 호구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답니다.

협궐열차

일제강점기인 1937년 조선경동궐도주식회사에서 인천과 수원을 잇는 협궐단선궐도인 수인선(水仁線)을 개통했어요. 이 당시 수인선은 궐로 폭이 762mm인 협궐궐로로 전장은 52.8km이고 영업구간은 46.9km였대요. 수인선 개통 전에는 인천에서 수원까지 도보로 11시간이 걸렸고, 버스는 그나마 하루에 1~2편만 다녔어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인천에서 수원까지 1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쥼.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이 들어간 수인선에는 총 17개의 정차장과 임시정류장이 설치되었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수원(정차장)↔고색(정차장)↔오목(임시정류장)↔어천(정차장)↔야목(임시정류장)↔빈정(임시정류장)↔일리(정차장)↔성두(임시정류장)↔원곡(정차장)↔신길(임시정류장)↔군자(정차장)↔소래(정차장)↔논현(임시정류장)↔남동(정차장)↔문학(임시정류장)↔송도(정차장)↔인천항(정차장)

이 중 소래역, 논현역, 남동역이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개설된 역이었어요. 1937년 간행된 『조선궐도협회지』 내 수인선 안내 부분에 소래역과 남동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소래역

수원까지 기차 운임 85전, 인천항까지 기차 운임 44전,
경성에서 상인천 경유 1원 12전
망둑어·송어·조개류가 무진장이고 낚시와 투망하기 좋은 곳
이곳에서 서식하는 게 중에는 진기한 것이 있어 집궐발이
매우 크고 색과 형태 모두 이상한 것이 있다.

남동역

수원까지 기차 운임 87전, 인천항까지 기차 운임 31전,
경성에서 상인천 경유 99전
붕어 낚시의 적지이고, 바다 낚시 역시 추천
이곳에서 송도에 이르는 구간의 갯벌은 조개를 잡기 좋은 곳이다.

이러한 수인선을 달리던 기차가 바로 협궐열차입니다. 다른 표준열차에 비해 좁은 간격이기에 협궐라 불렸어요. 협궐열차의 모습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소래역사관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래역사관 정문 앞에 인천광역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협궐 증기기관차(희기-7형)'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협궐 증기기관차는 1952년 수원 기관차사무소에서 조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8년까지 수인선 등에서 운행되었답니다. 그 후 1983년 쌍용그룹이 한국도로공사에 기증하면서 대관령 휴게소에 전시되었어요. 2001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담방문화근린공원으로 이전 설치되었다가 200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어요.

협궐 증기기관차는 수인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폐차되었어요. 현재 국내에는 6량만 보존되어 있기에 희귀성이 높은 문화재이죠. 지금도 협궐열차는 소래포구와 소래역사관을 찾는 관광객을 위풍당당하게 맞이하고 있어요.



해수김치

김치는 아시다시피 배추, 오이, 무 같은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우리 고유의 식품이에요. 사람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어야 영양균형이 잡혀요. 곡물과 달리 오래 저장하기 어려워 발효시켜 먹었거든요.

우리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김치는 고려 중엽 이규보(李奎報)의 「가포육영(家圃六詠)」이에요. 글에는 “무장아찌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 되네.”라고 써져 있어요. 이처럼 건강과 저장에 좋은 채소 발효 식품을 우리 조상님들은 약 천 년 전부터 만들어 먹었던 거죠.

김치는 지역마다, 심지어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과 속 재료가 달라서 맛도 다양 각색이에요. 그러나 예로부터 변함없는 것은 채소를 소금물에 담갔다는 거예요. 조선 초부터 채소를 소금물에 담갔다는 뜻의 ‘침채(沈菜)’, 혹은 ‘딤채’로 부르다가 오늘날의 김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닷물도 말하자면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담근 김치가 있는데, 이를 ‘해수 김치’라고 해요. 소래포구에서도 해수 김치를 만들어 먹어요. 배추를 기본 재료로 바닷물에 절여요. 무, 갓, 쪽파, 다진 파와 마늘 등 채소와 고춧가루, 찹쌀풀 등 조미료, 명태살이나 젓갈로 버무려 숙성시켜요.

소래포구는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소금만으로 김치를 담그는 대신 젓갈이 들어가면 아미노산 덕에 감칠맛이 나요. 그래서 김장철이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젓갈을 구할 수 있는 소래포구가 더욱 인기랍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사용해 김치를 담그는 건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활어회

회는 날생선이나 날고기를 잘게 손질해서 먹는 요리예요. 보통 다른 설명이 없으면회는 생선회를 말해요. 서양보다는 동양,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으로회를 즐겨 먹어요. 한국에서는 활어회를, 일본에서는 선어회를 주로 먹는답니다.

활어회는 살아 있는 생선을 수족관에서 바로 건져 간단히 손질하여 먹는 것을 말해요. 선어회는 생선회를 뜨고 나서 수 시간에서 며칠간 냉장 숙성시킨 거죠. 활어회는 육질이 신선하여 쫄깃한 식감으로 한국에서 사랑받고, 선어회는 들끓는 감칠맛으로 입맛을 돋우어 일본에서 인기랍니다.

예부터회는 고급 요리로 여겨졌어요. 물고기는 내륙까지 운반할 때 쉽게 상하거든요. 어떤 조리도 하지 않기에 오로지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숨쉴 있는 요리사가 손질해야 해요. 요즘도 내륙에서 활어회를 즐기려면 산 물고기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시설과 수족관을 갖추어야 해서 해안가보다는 비싼 편이에요. 고등어와 갈치처럼 부패가 빠른 생선도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지요.

소래포구는 서울 근교의 몇 안 되는 해안가 어촌 풍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 덕분에 활어회를 뜨는 식당들이 많아요. 광어, 우럭, 도다리, 전복, 명게, 굴, 백상합, 피조개 같은 바닷고기와 조개를 즉석에서 시식할 수도 있어요. 혹시 사 가신다면 활어의 머리와 내장, 껍질, 그리고 꼬리는 꼭 제거하고 회 뜨셔야 해요. 세균을 안에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뒤 살을 얇게 저며 접시에 담고 취향에 따라 초고추장이나 고추냉이를 섞은 간장에 찍어 드시면 별미예요. 게다가 활어회는 지방과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회화 소래포구회화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바다와 갯벌, 그리고 협궤철도 등으로 인해 매우 특색 있는 풍경을 자랑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예술인들이 소래포구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 왔다고 해요.

특히 소래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인천일보에 연재한 <김재열의 풍경 드로잉> 화집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인천의 특색 있고 다채로운 모습을 수채화로 표현한 이 화집은 작가의 인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요.



출처: 인천일보

해오름광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해오름광장은 소래포구를 따라 조성된 광장이에요. 수변광장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바닷가를 향해 길게 늘어선 광장은 인천 돌레길 7코스 해안길의 일부예요. 산책로는 소래역사관~해오름공원~고잔틀 케이트~남동공단~남동유수지~동막역까지 걷는 약 7.4km의 길이랍니다.

해오름광장은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낮에는 수변 1.5km 구간 내 나무 데크로 조성된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밤에는 ‘항금꽃게’와 ‘새우타워’ 등 조형물에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도 만들었답니다. 특히 소래포구 입구의 새우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포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또 해오름광장에서는 야외무대와 광장을 활용해 바닷가를 배경으로 계절마다 축제와 행사가 가득해요.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매년 9~10월 무렵 광장에서 ‘소래포구 축제’를 열어요.

해오름광장은 어시장 가까이 있어 휴일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회를 즐기기에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공원은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 올 수 있답니다.

해넘이다리

해넘이다리는 남동소래아트홀 인근에 있어요. 다리는 길이 315m, 폭 6.5m의 보행자 전용 다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과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연결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소래포구역에서 나와 바닷가와 갯벌을 따라 해넘이다리를 건너보세요. 아래로 소래포구를 오가는 어선 너머로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어요. ‘해넘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답니다.

해넘이다리의 ‘해넘이’는 저녁 무렵 해가 지는 현상, 혹은 그때를 말해요. 비슷한 말로 ‘노을’, ‘석양’, ‘낙조’도 있어요. 노을은 해가 하늘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현상, 석양은 저녁때의 햇빛이나 저물어 가는 해를 말해요. ‘낙조’는 저녁에 떨어지는 햇빛과 태양 주위에 감도는 붉은 기운까지 포함해요.

해넘이 명소는 서해안에 많기로 유명해요. 태안해안의 꽃지해변, 한려해상의 달아공원과 초양도,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해남 땅끝마을도 있죠. 대부분 수도권에서 제법 먼 거리라 근처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마음 먹고 연말 해넘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수인·분당선을 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해넘이다리로 오시면 해 질 무렵 언제라도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을 볼 수 있어요.





한국화약 인천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는 한화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화약분야 전시관으로 화약산업의 발상지인 한국화약 인천공장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주식회사 조선유지가 지금의 남동구 고잔동에 생겼고, 해방 이후 방치된 공장을 한국화약이 사들이며 시설을 복원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산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1956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초안폭약을 생산했어요. 1958년 다이너마이트를 완전 국산화하기도 했죠.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소금이 필수라고 해요. 화약 공장이 남동구에 들어선 이유도 양질의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였죠. 2006년 공장이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옮겨갔고 현재는 기념관이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화약제조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본관을 비롯해 제조하는 곳과 직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미사 보던 채플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화기념관에서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그 당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경기문화재단, 『경기만의 갯벌』, 2000.

남동구, 『함께 떠나는 남동구 역사기행』, 2020.

남동문화원, 『소래 삶의 터전』, 2018.

인천광역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 2003.

_____, 『인천역사문화총서 24 : 인천의 길과 시장』, 2006.

_____, 『인천역사문화총서 45 :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2008.

_____, 『인천역사문화총서 55 :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_____, 『인천역사문화총서 66 :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2011.

_____, 『인천광역시사 5 : 인천의 지명』, 2015.

_____, 『인천광역시사 6 : 인천의 지지와 지도』, 2015.

_____, 『인천광역시사 9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터』, 2018.

_____, 『인천광역시사 11 : 인천의 민속』, 2020.

김승 외, 「조선시대 전래의 파시와 어업근거지 파시의 비교연구」, 『수산연구』 22호, 2005.

송기태, 「한국 물때력(潮汐曆)의 두 체계」, 『비교민속학』 72호, 2020.

정수현, 「한국과 일본의 외래음식 수용과정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5호, 2015.

한역, 「전통 국수·수제비류의 제조 기술과 산업화 동향」, 『식품기술』 10호, 1997.

『삼국사기(三國史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여지도서(輿地圖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인천일보·경기일보·경인일보 등 기사

소래포구 스토리북

발행일 2023. 8. 31.

발행인 남동구청 박종효 구청장

편집인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기획인 남동문화재단 임원재 사무국장

제작인 남동문화재단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

신창희 차장, 이다솜 주임, 황승빈 사원

감 수 서정미 겸임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진나래 겸임교수(인하대학교)

디자인 노아 북앤컬처

발행처 남동구 · 남동문화재단

문 의 070-8820-4037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